

배포

2026. 5. 11.(월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관악구와 협력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주거상향 통합 지원 실시

- LH, 관악구 소재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 시행
- 주거급여 주택조사 절차에 주거상향 지원을 더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‘주거급여 주택조사’에 ‘주거상향 지원’을 더한 ‘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.

-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(확인)조사 절차*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절차를 접목해 조사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,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.

*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료 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(주거급여법 제11조)

□ 이에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,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시행했다.

-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단기 현장 집중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. 조사원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, 임대료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,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.
-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, LH는 이달 이주지원119센터*를 통해 희망주택 물색, 서류작성, 계약신청 등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.

*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전담조직으로 전국 55개소에서 이주·정착 지원 수행

- 한편,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천 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도왔다.
- LH 관계자는 “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주거복지계획처	책임자	팀 장	한도용	(055-922-3306)
		담당자	차 장	남승용	(055-922-3332)

NH,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황 더해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

주거급여 주택조사

- 실거주 여부, 임대료 변동여부 등 조사
- 실제 주거환경 조사



절차연계

주거상황 지원

-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지원



현장 조사 기능 강화로 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빠짐없이 지원